

李-트럼프 첫 정상회담 통상분야 주요 의제 '주목'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산업 협력 반도체·배터리 등 대미투자 논의 농산물 등 비관세 분야 선방 관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되면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통상 분야의 의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가 관건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아울러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사업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등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논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5일 미국을 방문해 25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타결한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에 부과 중인 25%의 품목관세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합의됐다. 이는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조건이다.

한국은 경쟁국인 일본·EU 수준으로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에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1천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의 구체적

인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태지만 각론까지 세세하게 합의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시기,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천50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이 해군력·조선업 부흥을 위해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여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의 조선 협력의 경우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운영 중인 한화그룹 사례에서 보듯 미국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의 합성이나 상선을 만들어 우선 공급하는 방안, 미국에서 조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외 2천억달러 규모의 '범용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너진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는 데 관심이 많고, 한국 기업들 역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제조 기반을 마련해 생산 거점으로 삼는 것이 성장 전략으로 유효해 이해가 맞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측은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설명하고 있고, 한국 측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계속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정상 간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지난 관세 협상에서는 '보합' 수준에서 넘어간 농산물,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 추가 시장 개방 등 문제를 놓고 인식 차가 있는 상황이다. 미국 측 공세에 한국 측이 어떻게 추가 개방 압력을 막고 선방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김지연 전망총괄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경제전망 수정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KDI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0.8% 그칠 것"

PF 정상화 지연 등 건설 부진에 못 올러 반도체 관세 상황되면 더 낮아질 수도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 기대감과 소비 회복세에도 극심한 건설업 부진에 발목이 잡혀서 전망치를 올리지 못했다.

KDI는 반도체 관세율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미국과 중국 등의 통상갈등이 심화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숫자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KDI는 0%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주된 배경으로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상반기 건설투자가 기존 전망을 밑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가 지연돼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8.1%)을 기존 전망보다 3.9%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올해 수출 증가율도 작년(6.8%)보다 크게 둔화한 2.1%로 전망했다.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KDI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정한 것이라고 KDI 측은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2.0%로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상반기 전망보다 0.3%p 상향 조정된 것이지만 작년(2.3%)보다는 낮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 상반기 전망치와 같다.

수출 증가율(0.6%) 둔화 전망에도 건설투자(2.6%) 등 내수 부문이 반등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보완한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회복이 반영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돼 2.6% 늘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도 내년 1.5% 늘어 올해보다 증가세가 가뭄대일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미국과 주요국 간 통상 갈등이 격화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져 성장률 등 전망치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를 수출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발표된 반도체 품목 관세는 세부 사항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이번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우리 반도체가 대만·아세안 등에서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 인상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지연도 '전망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건설업체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조달청, 수해 가구업체 복구 지원 봉사활동

광주지방조달청은 12일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 복구 소재 가구 업체를 찾아 복구 지원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광주조달청 직원 10여명은 피해 현장을 찾아 침수된 가구 자재와 폐기물을 정리하고 진흙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조달청은 '집중호우 등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조달지침'을 시행(7월22일-10월31일)해 조달절차 완화를 통해 긴급 수요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폭우 피해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

거나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 /인태호기자

심의회호 220603-중-139779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